

## The Effect of Lithium Chloride on the Wet Spinning of Polyvinyl Chloride in N,N-Dimethylformamide

이 수, 박성실, 오강석, 오영세\*, 김성룡\*

창원대학교 공업화학과, \* 한일합섬 기술연구소

### Introduction

폴리염화비닐(PVC)를 섬유소재로 이용하려는 연구가 1930년경부터 약 20년간 활발히 전개된 결과, 프랑스 Rhovyl사(상품명 Rhovyl)와 일본 Teijin사(상품명 Teviron)가 1950년경에 PVC섬유를 본격 상업화하였다. 그 이후 새로운 합성섬유인 아크릴, 나일론 및 폴리에스터섬유가 상업화 되면서 PVC섬유는 더 이상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. 하지만 PVC섬유의 독특한 성질, 즉 뛰어난 난연성, 낮은 열전도성, 내약품성, 내후성 및 높은 열 수축성으로 현재까지 일정부분의 시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. 특히 PVC섬유의 음이온 대전성은 류머티스 및 관절통 환자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따라서, PVC섬유는 의류용 뿐만 아니라 산업용, 인조 모발용 등으로 그 활용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이에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다시 재기되고 있다. PVC를 섬유화하는 방사 방법에는 melt-spinning, dry-spinning 및 wet-spinning을 들 수 있는데, melt-spinning은 PVC의 용융점과 열분해온도가 비슷하여 적절한 조건을 가진 process의 개발이 어렵다. 다만 많은 양의 가소제 또는 안정제가 첨가되면 melt-spinning이 가능하나, 이는 곧 섬유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. 최근에는 높은 인장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인조모발용은 melt-spinning에 의해 제조 되기도 한다. 한편, 상업적인 규모의 PVC섬유 제조 process에는 주로 용매를 이용한 dry-spinning과 wet-spinning이 도입되고 있다. dry-spinning의 경우 benzene-acetone 또는 CS<sub>2</sub>-acetone의 혼합용매계가 사용되고 wet-spinning의 경우 tetrahydrofuran 또는 cyclohexanone 등의 용매가 사용되고 있으며 용매의 종류에 따라 응고액의 조건과 응고사의 형태 및 최종섬유의 물성이 달라진다.

본 연구에서는 wet-spinning에서 검토된적이 없는 dimethylformamide(DMF)를 용매로 선정하여 응고액의 종류 및 응고 액의 조성에 따라 PVC섬유의 형태와 물성거동을 조사하였고 LiCl을 첨가했을 때 dope의 거동과 LiCl이 PVC의 습식방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.

### Experimental

PVC수지는 DP가 1,300인 powder를 사용하였고, N,N-dimethylformamide(DMF)는 Tokyo kasei 1급 시약을 정제없이 사용하였다. 그리고 methyl alcohol(MeOH)은 공업용을 사용하였다. 60°C에서 DMF를 용매로 LiCl을 0.5%첨가 후 PVC 농도가 17wt%인 spinning dope를 만든 후 습식방사를 실시한다. 이때 방사에 사용된 Nozzle은 hole 수가 26개, hole 직경이 0.4mm이다. 질소의 압력은 0.3MPa로 조절한다. Bobbin의 직

경은 50mm이고 bobbin의 속도는 250rpm(78m/min)으로 방사를 실시한다. 응고액은 MeOH, H<sub>2</sub>O, MeOH/H<sub>2</sub>O=8/2, 6/4, H<sub>2</sub>O/DMF=8/2로 하였다. 응고액을 거친 fiber는 수세를 거쳐 45°C dry oven에서 24시간 건조한다. 수동 연신기를 이용해 각각 3배, 5배 연신을 실시하여 응고사와 연신사의 물성을 측정한다. 섬유의 물성 및 형태는 SEM, Rheovibron, Tensilon을 사용하여 측정했다.

## Result

습식 방사로 제조된 섬유의 기계물성은 응고사 구조에 크게 의존하는데, 응고사 구조는 대개 단면의 형태, 내부 void 유·무와 크기로 결정된다. 그리고, 응고사 구조 형성은 용매와 비 용매와의 상호 확산속도 비, 즉 응고사에서 응고액에로의 용매 확산속도( $J_s$ )와 응고계에서 응고사에로의 비용매 확산속도( $J_n$ ) 비에 의존한다. 용매 확산속도가 비용매 확산속도보다 빠를 경우 ( $J_s/J_n > 1$ ), 응고사 내부 압력이 낮아져 단면 형태는 험몰되어 비대칭형을 이루게 되며<sup>1)</sup>, 반대로 용매 확산속도가 비용매 확산속도보다 느릴 경우 ( $J_s/J_n < 1$ ), 응고사 표면에 강한 skin층이 형성되어 단면 형태는 원형을 유지하나 비용매가 응고사 내부로 침투되어 거대 void가 radial 방향으로 형성된다<sup>2)</sup>. Fig. 1에서 MeOH의 경우 응고력이 적당하여 응고사의 표면에 skin 층이 형성되지 않지만 다른 응고액의 경우 응고과정에서 형성된 응고력이 너무 커서 ( $J_s/J_n \ll 1$ ) 응고사 표면에 skin 층이 먼저 형성되어 응고사 내부에 존재하는 void가 험몰되어 그 흔적이 표면에 나타난 결과이다. 응고액이 MeOH인 경우 응고사 구조가 치밀하고 단면형상도 원형으로 나타났고, MeOH 함량이 많을수록 단면 구조가 치밀하게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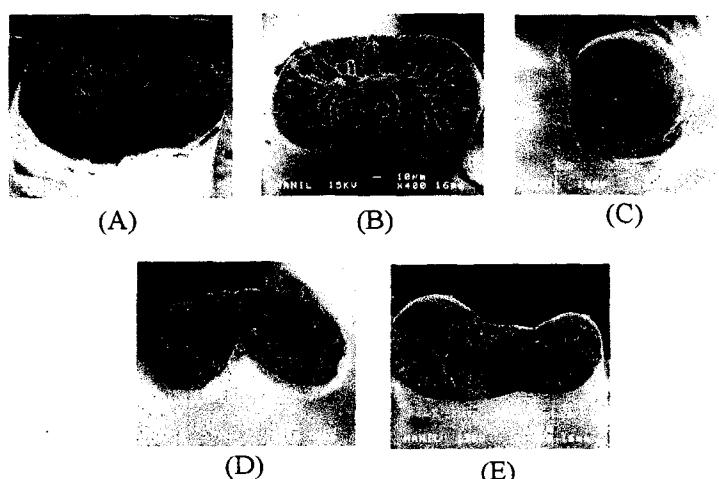


Fig. 1 SEM micrographs of coagulated PVC fiber  
; (A) H<sub>2</sub>O, (B) H<sub>2</sub>O/DMF=8/2, (C) MeOH, (D) H<sub>2</sub>O/MeOH=2/8,  
(E) H<sub>2</sub>O/MeOH=4/6

## Reference

1. V. Grade and K Meyer, *Faserforschung und Textiltechnik*, **20**, 467(1969).
2. Q, Baojun, P.Ding, and W,Zhengiou, *Adv. in Polym. Tech.*, **6**, 509(1986)